

## ■탐방■

- 경기축산을 찾아서 -



**계사현대화를 통한  
생산비절감을  
이룩해 간다**

■취재 : 김용화 기자■

윤사장은 꽤 잔잔한 성격만큼이나 계사건축에 쓴은 정성이 농장에 첫발을 디딘 순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축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현재 육계산업은 산업 규모로서는 낮은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된 요인으로는 가격의 진폭이 커서 장기적인 경영안목 없이 생산비 절감을 비효율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소자본에 의한 고소득만을 앞세워 왔기에 더욱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수십년간 육계업을 경영하면 서도 계사에 대한 인식은 병아리 사육시 가두어 놓는 건물쯤으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내외부의 육계산업에 대한 압력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성향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전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막연히 자본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행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대화시설을 갖춘 계사에서 사육을 하게되면 어떤 잇점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사에 대한 투자는 곧 자산의 낭비로만 생각하기 쉬운 실정에 있다.

이번 취재도 이미 자동화 시설을 갖춘 계사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을 소개하여 경영 합리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밝혀둔다.

팔탄면 율암리에 소재한 경기축산은 1985년 4월에 착공하여 동년 9월에 완공을 하였다. 육계입주는 6월부터 입주가 시

## 육계농장이 변화되고 있다

작되었다. 총대지 5,500평으로 진입로부터 각 계사건물 사이 까지 시멘트로 길을 포장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계사는 200평짜리 육성사가 있고 50평짜리 육추사가 잘 정돈된 형태로 세워져 있어 닭을 '기르는 농장이라기 보다는 2차가공을 하는 공장같은 느낌이 들었다. 큰 농장에 (6만수) 비해 관리인은 2명 뿐이었다.

자동화 시설을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계사로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온풍기, 원치카텐 등을 설비하였다. 그리고 육추실은 개스육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육성실과 다른 점이다. 이제사는 200평 규모로 10,000수가 수용된다. 육추실은 50평으로 역시 10,000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경영비에서 유리하다.〉

재래식 계사의 경우 관리자 1인의 관리능력은 10,000수가 되지만 자동화시설 계사의 경우는 30,000수까지 가능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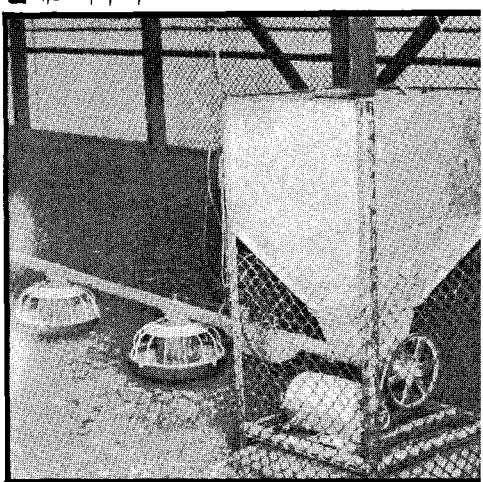
경기축산의 일례를 보면 6만수 사육시 관리자가 4명이 필요없게 된다. 1인당 임금으로 250,000원을 지급한다면 1백만 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일 뿐더러 임금액이 생산비를 절감케 하는 요인이 된다.



▲계사시설 내부광경



▲개스육추기



▲자동급이장치



### 〈사료비 절약에 한몫〉

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1수당 몇g의 사료절감은 생산효율을 높여주면서 수익면에서 이득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양관리를 하더라도 사료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산효율 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 방안으로 경기축산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급이기상태를 분석해 보면 휘드빈을 설치할 경우 포대사료 구입시보다 포대당 110원이 절감된다. 6만수 사육시 총절감액을 계산해보면

1만수 사료급여량이 1개월당 1,500~1,800포대이다.  
포대당 110원이 절감되므로  
6만수 사육시에는  
1,056,000원이 절약되는 셈  
이다.

또한 자동급이기를 설치하면 급이통에 사료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낭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계사자체의 허실이 없고 쥐에 의한 손실이 없어 사료효율이 전체적으로 10%가 높아진다고 윤덕현 사장은 말한다.



• 경기도 수원시 서남쪽 약20km쯤에 위치한 경기축산(대표 : 윤덕현)은 현대화시설로 건축한 계사에서 대규모 육계사육을 하고 있다.

이것을 사료값으로 환산해 본다면

1만수 1개월 사료급여량이 1,600포로 잡을 때 (하이, 세미, 열치기 출하평균) 10% 효율이 증가되면

$160 \times 5,000 = 800,000\text{원이}$   
절감(사료 kg당 200원)  
총 6만수 사육시는  
4,800,000원이 이득이  
된다.

### 〈경쟁력에서 유리〉

인건비와 사료비, 질병약품비 등을 근거로 생산원가를 계산하면 재래식 계사에서보다 약 50원이 절감된다.

시설의 현대화로 인한 제반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농장부지 제외) 30원(경기 축산 산출액)이 되어 총 20원이 생산원가 절감에 해당된다.

이것을 6만수 사육에 산입계산하면 1천2백여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 시장개방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산물이 수입개방되고 볼 때 대외적인 경쟁력이 없는 경영은 곧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매우 계사시설의 현대화는 바람직한 일로 받아

들여진다.

### 〈사양관리에 효과적〉

재래식 계사의 최대 단점은 온도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브로일러의 경우 육추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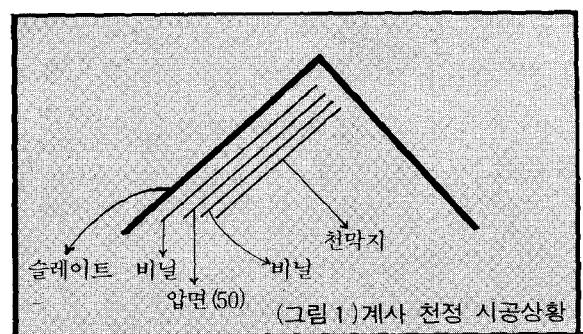
그리고 관리인이 적어 올인 올아웃 사육을 실시할 수가 있어 마지막 육계 출하시 전 계군에 대한 방역작업이 일시에 실시되어 효과적인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열관리는 개스육추에 의하므로 관리가 용이하고 작업환경이 깨끗하여 효과가 매우 크다.

부담이 된다면 아직은 개스 값이 비싸 연탄사용비보다 50%가 더 소비되는 점이다. 그렇지만 연료의 개선이 이루어 지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 〈환기시설은 이렇게〉

경기축산의 계사는 지붕에 환기창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계사내부에는 온풍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 열효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한다. 대신 원치커텐시설을 하여 환풍을 시키고 있는데 후한기에는 이 원치커텐을 보온상 달아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환기창이 없어



불편을 겪기도 하고 있다. 이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였고 실제 필요를 느끼고 있어 새로운 환기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온풍기를 설치 운영해 본 본 바에 의하면 연탄연료비보다 50%는 더 소요되지만 관리가 용이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연탄연료 사용시는 바닥이 습한데 반해 온풍기 사용시에는 습함이 없어 매우 깨끗하게 사양관리를 할 수 있다.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다. 하나 계사의 길이가 길 경우 출입문 양끝의 온도편차가 생기는데 석유버너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

아 있다. 1년 4~5회전 정도로 올인 올아웃을 하고 있다.

#### 〈효과적인 계사설계〉

바닥은 깔짚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평사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출하가 끝나면 바닥 흙까지 교체하고 있는데 장차 시멘트로 공사를 할 예정에 있다. 사료번의 사용으로 사료로 인한 문제점은 거의 없으며 급수시설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 〈계사 천정 시공상황〉(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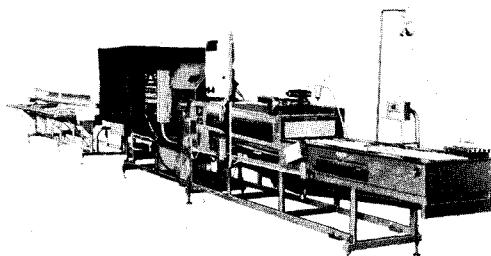
계사공사는 평당 78,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설계비는 전문설계업체에 일임하여 평당 4,000원에 해결이 되었다.

영구계사를 건축한 윤사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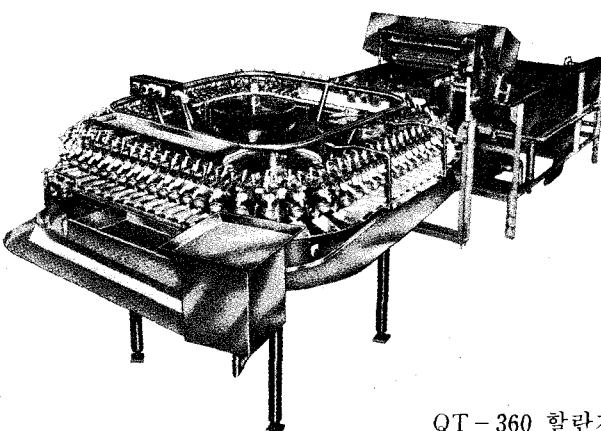
경험을 묻자 이렇게 요약을 해주었다.

- 영구적인 계사만을 염두할 필요가 없다.
- 파이프계사도 보온에만 신경을 쓰면 시설비가 적게 든다. (평당 27,000~28,000원).
- 사료빈 설치는 펠렛사료 사용도 가능케 설계해야 한다.
- 계사바닥은 시멘트로 깔아 물청소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

'많은 자본투자는 있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영구식 계사를 고집한 것 외에는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윤사장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농장경영을 원한다면 시설의 현대화를 서둘러 가야 하리라고 본다.



**Kyowa (共和) G·P 기계는 日本에서도 당연 No.1 !**



QT - 360 할란기

**Kyowa** G·P기계는 세계 어느 MAKER보다도 구조 및 운전이 간편합니다.

- 대형 : 15,000~40,000개/시간
- 소형 : 3,600~10,000개/시간

1. G·P기계류(위생란류)
2. 계란가공기계류(액란, powder)
3. 난좌 세척기류

※폐사는 G·P 및 계란가공시설 전문업체임.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3-1  
(성원B/D 1302-1)  
송원실업(주) 776-1827,  
FAX 757-3707

**日本:共和機械(株)**

TEL: (0868) 26-6600,  
(미국 HENNINGSEN 기술제휴)